

건축마당

해외잡지동향
overseas journal

Domus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al Record

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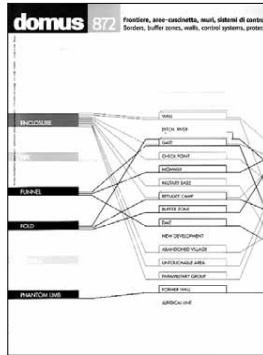
신건축

Domus

2004년 7~8월

최근작으로 Renzo Piano의 스위스 베른 Zentrum Paul Klee, Massimiliano Fuksas의 이탈리아 Maranel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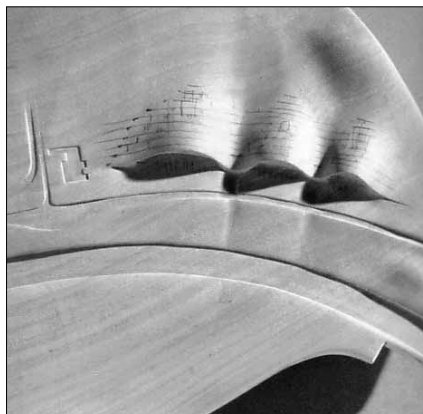
Ferrari 상품개발센터를 소개하고 있으며, 디자인 부문에서는 Droog Design, Toyo Ito의 최근 디자인 전시회 소식을 다루고 있다.



■ 근작소개

Renzo Piano의 스위스 베른 Zentrum Paul Klee

20세기 초의 위대한 예술가 Paul Klee에 대한 열정을 통해 Renzo Piano, 정형외과의사 Maurice Muller, 피아니스트 Maurizio Pollini를 한데 모았다. 베른 중심가로부터 조금 떨어진 구릉지에 들어설 Piano의 거대 구조물 아래 2005년 6월부터 다양한 문화적 이벤트가 벌어질 예정이다. 시내로부터 떨어진 입지는 접근성이 중요한 문화시설로서는 이례적인 일인데, 이는 미술관 자체를 하나의 대지 예술로 인식하고 새로운 장소성



Renzo Piano의 스위스 베른 Zentrum Paul Klee

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의 결과였다. 목초지를 포함하는 전체 계획은 Klee의 작품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이었으며, 이러한 풍경 속에 Piano는 물결 형태의 거대 전시공간을 삽입하였다. 총 3개로 구성된 이 건물군은 전체 철골조의 길이가 4.2km에 달할 정도로 거대하며, 그 곡선은 주위의 자연 지형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4m에서 19m까지 다양한 천정고를 갖는 이들 건물은 Klee의 작품과 글 등 예술품을 위한 전시장으로 사용되며, 세미나와 워크숍 공간도 제공하게 된다. 대지는 Klee의 묘로부터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시각적 연계를 구축하고 있기도 하다.

Massimiliano Fuksas의 이탈리아 Maranello Ferrari 상품개발센터

1970년대에 Francois Truffaut와 Alfred Hitchcock의 인터뷰를 읽은 후부터 Fuksas는 건축에 바탕을 둔 건축이 아닌 영화적 원류를 가진 건축에 매혹되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건축을 몽타주 작업으로 보고 있으며, 그렇기에 Wim Wenders가 잘 사용하는 롱테이크의 시퀀스 쇼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의 건물은 외부의 풍경을 단편화시키고 이를 조직적으로 편집한다. 2층의 경우 다목적홀의 전면유리 사용은 황색으로 가득 찬 내부로부터 외부 수반으로의 갑작스런 전환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동시에 주위의 도시 경관을 실내로 끌어들이고 있다. 빛, 풍경의 반사, 투명성 그리고 열의 어긋남을 통해 건물 전체



Massimiliano Fuksas의 이탈리아 Maranello Ferrari 상품개발센터

의 형태는 그 굳건한 물질성을 잃게 된다. 밤에는 전혀 다른 경관을 연출하게 되는데, 입면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재들 사이로 내부의 모습들이 분화되어 제시되게 된다. 그의 건물은 전체 특성을 잡아내는 단 하나의 시점을 갖고 있지 않다. 하나의 사진으로 설명이 될 수 없고, 부분들을 구성함으로써 전체 구조가 비로소 드러난다는 점에서 바로 몽타주의 건축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 기타

올림픽 개최를 한달 여 앞두고 여전히 미완 공된 그리스 아테네의 올림픽 시설 방문기, 사무실 개실 10주년을 맞은 Droog Design의 전시회, 지난해 말 작곡한 Mario Merz를 추억하는 Jannis Kounellis, Manuela Gandini의 글, Asymptote Studio의 베니스 비엔날레 설치작품, Hans Ulrich Obrist와 Richard Hamilton의 인터뷰, Toyo Ito의 가구디자인 전시회 소식을 다루고 있다.

Architectural Review

2004년 9월

최근의 건축 사례로 Klein Dytham의 일본 Kobuchizawa 예식장, Herzog & de Meuron



의 스페인 바르셀로나 포럼 2004 본부와 광장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자연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건축 그리고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한국의 전통건축에 대한 에세이를 실고 있다.

■ 근작소개 - Klein Dytham의 일본 Kobuchizawa 예식장

비일상적인 장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요즘 일본에서 흔한 일이 되고 있다. 일본사람들은 한 종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불교, 신도, 기독교 중에서 선택하므로 특정 종교적 장소에서만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다. 최근 완공한 Leaf Chapel은 일본의 남쪽 알프스라고 불리는 숲을 배경으로 성스러운 결혼식을 위한 장소가 되고 있다. 눈동자를 연상시키는 구조로서 일부 배면은 땅에 묻히고 정면으로는 숲을 배경으로 작은 반사연못을 마주하고 있다. 동굴과 같이 이룩한 내부는 '눈꺼풀'과 같은 차양이 설치되어있다. 이 차양은 소용돌이치는 잎사귀 모양으로 편칭된 아크릴 판으로 만들어졌으며,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차양이 완전히 닫히면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은 편칭 구멍사이로 은은하게 내부로 퍼진다. 움직이는 차양은 성스러운 예식 과정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예식의 마지막, 신랑이 신부의 베일을 걷을 때 이 차양도 함께 올라가면서 자연의 파노라마가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 식이 끝나면 하객들은 연못을 가로질러 야외 연회장으로 나가 연회를 즐기고, 예식장의 차양은 다시 닫혀서 다음 예식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다.

■ 자연을 이루는 요소들과 건축 Building with the Elements

땅, 바람, 물 그리고 바람은 예부터 심원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존



Klein Dytham의 일본 Kobuchizawa 예식장

재는 이 네 개의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믿어져 왔다. 이것들은 또한 자연의 힘을 상징하며 세계와 신의 영역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인식되었다. 건축에서는 이 요소들을 극복하는 것이 주요한 관심사였다. 구조 시스템은 명확하게 바람이나 불의 힘에 대해 저항할 수 있어야 하며, 건물의 외피는 비가 새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종 값비싼 방법이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더 가능성 있는 시각을 잃게 된다. 그 고유의 속성을 이용하고 잘 다스림으로써 환경적으로 잘 이해한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는 기술과 지역적 전통의 결합으로 나타나며, 이는 건축의 형태와 재료 본래의 속성을 잘 이해하는 것을 통해 얻어진다. Peter Blondell Jones는 한국의 전통 건축에 대한 분석에서 '한국사람들은 단순하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기후와 균형을 잘 이루고 생활한다.'고 언급하였다. 자연은 풍부한 건축문화를 생성시키고, 그러한 결과로 생성된 건축은 공기조화 시스템을 채택한, 에너지를 마구잡이로 소비하는 일반적 건물들에 대해서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건물과 자연요소간의 관계를 재평가하는 것은 물리적이고 경험적 과정 모두를 요구한다. 단일한 외피로 실들을 밀폐하여 감싸는 것보다는 유연성 있게 외부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양, 발코니, 브리즈 쉘 레이유 등등이 외피에 복합적 요소를 부여하며, 현관, 아케이드, 온실 등은 외부와의 경계를 활성화시킨다. 또한 중정이나 아트리움은 실이 깊은 평면에 빛과 공기를 유입시킨다. 한편, 화초는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직사광을 부드럽게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Studio Downie의 국립 지리원이나 Edouard Francois의 파리 아파트 계획에서 이와 같은 방법들을 창의적으로 적용하였다.

Herzog & de Meuron의 스페인 바르셀로나 포럼 2004 본부와 광장

형태적으로는 매우 단순하지만 일견 지역적 컨텍스트에 대하여는 외계물체와 같이 보이는

이 건물은 그러나 물을 은유적으로 사용한 방식에서 컨텍스트에 대해 복합적으로 고민한 것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미묘한 처리는 '만들기'에 대한 혁신적인 방법을 지향하는 것에서나, 기존 도시조직에 공명하면서 퍼블릭한 공간을 생성하는 방식에서도 보여진다. 기하학적인 도시의 축에 의해 건물의 배치는 결정되었으며, 진입시의 역동적 효과를 위해 도로에 대하여 약간 비틀어졌다. 건물 전반에 걸쳐서 개념적인 아이디어는 디테일에까지 명확하게 전개된다. 내부와 외부에 걸쳐서 바닥은 동일하게 연속되며, 스프레이 페인트 된 유리 복합판은 이음매 없이 건물을 감싼다. 이러한 기술적 일관성은 천장에도 이어지는데, 금속제의 음향판은 오디오리움의 2층 객석 하부에까지 연장된다. Herzog & de Meuron에게 있어서 그들의 건물은 신선하면서도 기능적이고 재미있어야 한다. 그들은 포스트 모던적인 재치를 보이면서도 근대적인 고유성을 잃지 않는다. 또한 재료를 현실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교묘하게 실제와 달라보이게 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

Eduard Francois의 프랑스 파리 아파트

사고는 파리사람들이 발코니에서 화초 기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Flower Tower라고 불리는 10층짜리 건물로서, 캔틸레버로 나간 발코니가 건물의 외주부를 감싸고 있으며 그 위에 대나무가 식재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화분 380개가 전층에 걸쳐 설치되었다. 대나무가 적당한 상태로 길러지기 위하여 각각 자동으로 비료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배관이 설치되었다. 이 식재는 시각적 장관을 연출할 뿐 아니라 태양열과 직사일광을



Herzog & de Meuron의 스페인 바르셀로나 포럼 2004 본부와 광장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Herzog & de Meuron의 독일 함부르크 콘서트 홀

역사적인 건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르크는 근대 이후 랜드마크적 건물이 별로 없다. 그러나 Herzog de Meuron의 필하모닉 콤플렉스는 이러한 도시적 풍경을 바꿔 놓을 것이다. 기존의 항만 창고 위에 선루 같은 구조물을 얹은 이 건물은 Hapen City의 서쪽 끝 지점에 마침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 텐트와 같은 지붕아래 2,200개 좌석의 오디오리움, 600석 규모의 실내악당, 리허설 룸, 회의실, 미디어 도서관이 위치하며, 200실 규모의 고급 호텔과 아파트먼트가 야외광장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이룬다. 1966년 독일 건축가 Werner Kallmorgen이 설계한 이 벽돌 건물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상부에 복합적 프로그램을 태우고 벽돌 구조물 내부에는 주차장을 수용하였다. 그 밖에 Renzo Piano의 이태리, Puglia, Pilgrimage Church, Studio Dawnie의 런던, 국립지리원등이 자연요소를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자세히 소개되었다.

Architectural Record

2004년 10월호

최근 전 세계 도시마다 계획되고 있는 박물관 건축의 최신 경향을 다루고 있으며, 건물 타



입별 연구 코너에서는 의료시설의 최근 사례들을 소개했다. 주택부문에서는 Juhani Pallasmaa의 최근 작품이 소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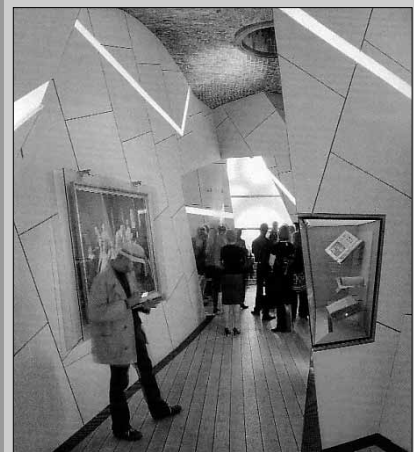
■ 박물관 근작소개

최근 건축잡지들에서 박물관을 너무 많이 다루는 것 같지만, Gehry의 Bilbao 미술관의 성공 이후 수많은 도시들이 저마다의 대표적 박물관을 계획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전시품들을 위한 이상적인 배경 조성이라는 소극적 역할에서 벗어나 건축 자체의 목소리를 내고 또 박물관과 사회의 새로운 관계를 도모하고 있는 최근의 박물관들을 살펴본다. 최근에 완공된 Polshek Partnership의 뉴욕 Brooklyn Museum, Tadao Ando Architects & Associates의 일본 Aomori Contemporary Art Center, Gluckman Mayner Architects의 스페인 Museo Picasso Malaga, Studio Daniel Libeskind의 덴마크 코펜하겐 유대인 박물관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 건물타입별 연구 - 병원

Rafael Moneo의 스페인 마드리드 Gregorio Marañon 산부인과 및 소아병원

Moneo는 병원이 "과학의 도움을 통해 병을 치유하고자 이들이 기대하는 과학적 논리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모든 요소들은 건강을 위한 위생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건축 전문가인 Jose Maria de la



덴마크 코펜하겐 유대인 박물관

Mata와 함께 진행한 이 계획은 그리드를 통한 간결하고 논리적인 평면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8개의 중정을 통해 유입되는 자연광으로 모든 병실과 복도를 '소독'하고 있다. 서로 관련이 깊은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동시에 수용하고 있으나 진찰실과 서비스 공간을 제외한 출입구, 수술실 등은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 20세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개발돼온 슈퍼블록의 한쪽 끝을 새로 계획한 것으로 입면은 알루미늄 멀리언들로 분리된 유리 스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에는 불투명 유리를 중간에 삽입시켜 전체적으로 가벼움과 청결함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 중정들은 딱딱하고 공격적인 주위 도시환경으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장치로 고안되었다.

그외의 최근 우수 병원건축의 사례로 Henriquez Partners/IBI Group의 캐나다 뱅쿠버 어린이 병원 Ambulatory Care Building, Domenig/Eisenkock/Gruber의 오스트리아 Graz-West Provincial Hospital, NBBJ의 미국 워싱턴 Bremerton Naval Hospital을 소개하고 있다.

■ 주거

Juhani Pallasmaa Architects의 House of Silence

핀란드의 우거진 자작나무 숲속에 지어진 '침묵의 주택'은 절제된 표현, 총체성, 자연에 대한 동경 등 Pallasmaa와 건축주가 공유하는 가치들을 담고 있다. 소형 사우나를 비롯한 소규모의 부대시설을 갖고 있는 이 주택은 Pallasmaa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인간적 스케일의 설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의 다른 최



Rafael Moneo의 스페인 마드리드 Gregorio Marañon 산부인과 및 소아병원

근 주택과 마찬가지로 쪼개진 원형을 취하고 있다. 거친 토양 위를 향해하는, 주위 자연 환경으로부터 보호된 배에 비유되는 이 주택에는 내외부로 다양한 개구부가 계획되었는데, 이를 통해 특정한 장소나 행위에 주목하게 하고 이들을 엮는 '영화적 몽타주'를 연출하고 있다.

Salmela Architects의 Two Black Sheds, Tighe Architecture의 Trahan Residence, Simon Condor Associates의 Vista House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 기타

얼마전 세상을 뜬 미국의 건축사 E. Fay Jones에 대한 단상, Libeskind, Hadid, Isozaki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탈리아 밀라노 중심가 고층건물군 계획 소식, 올해 베니스 건축비엔날레에 대한 간단한 소개, 전세계 유명건축물을 베이징 중심상업지구에 들어서는 LAB Architecture의 새 복합시설 소개, 건축테크놀로지 코너에서는 건축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업계의 새로운 시도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도로 Caesar Pelli, Moshe Safdie, Rafael Vinoly 등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필라델피아 도심 재개발 계획을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번역 / 최원준)

au

9월호

이 번호의 특집은 유럽에서의 리노베이션이다. 유럽은 18세기 이후의 근대 건축물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어 리



노베이션 작업이 일찍이 관심을 얻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이번 특집에서는 니콜라스 그림쇼, 장 누벨, 렌조 피아노 등 유럽의 저명한 중견 건축사를 포함한 건축사들의 최근 리노베이션 작업들이 망라되어 있다. 오래된 구조물에 새로운 조형미가 가미되고, 기존 기능과 전혀 다른 새로운 기능을 수용하면서 만들어내는 공간의 새로움은 오히려 백지상태에서 시작한 건축에서는 맞볼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한다.

■유럽에서의 리노베이션 : 재생되어진 공간

유럽은 아시아지역에 비해 근대의 도시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으로 건물에 대한 창조적 리노베이션 작업이 일찍이 진행되어왔던 곳이다. 따라서 유럽에서의 리노베이션은 건축활동의 중요한 축 중의 하나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 유럽의 리노베이션 작품도 심심치 않게 국내에 소개되어 왔다. 이번 특집은 최근의 유럽 리노베이션의 경향을 엿볼 수 있는 것인 동시에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건축사들의 작품들이 다수 포함되어있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리노베이션은 기존의 건물을 개조, 보수하여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이지만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과 새로운 기능의 건물로 재탄생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번 특집에서 소개된 것도 이와 같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기존 기능을 유지한 것들은 니콜라스 그림쇼의 배스 스파(Bath Spa), 미케일 세이의 퍼블리시스사(社)의 드러그스토어, B-아키텍텐의 극장, 페이펠릭의 바실리카와 성직자의 집, 홉킨스 아키텍츠의 식당 등이다.

니콜라스 그림쇼(Nicholas Grimshaw)의 '배스 스파' 프로젝트는 이름만으로도 온천도시임을 알 수 있는 영국의 '배스(Bath)시'의 오래된 스파시설들의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이며, 그 대상이 된 것은 '뉴 로얄 배스'로 명명된 신축시설을 포함하여, 크로스 배스, 핫 배스, 핫링크 배스, 7-7A/8배스 스트리트 등 총 5개 건물이다. 서로 인접해 있는 신축건물 뉴 로얄 배스와 핫 배스, 7-7A/8배스 스트리트 건물은 서로 연결되

어 개발되었는데, 신축건물과 기존 건물간의 층 고차는 스킵 플러워 방식으로 처리 했으며, 각 건물과 연결되는 공간은 명확한 분절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 눈에 띄지 않는 다리로 연결되게 하였으며, 다리에서는 시설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이 펼쳐지도록 하였다. 그림소는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면서 구 건물과 신축부분의 대비와 조화를 이루었는데, 신축건물인 뉴 로얄 배스는 유리 커튼월을 사용하였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모자형의 평면으로 된 핫 배스의 중정에 마련된 당이다. 1775년 설계된 이 핫 배스의 건물과 최신 설비의 옥탕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리노베이션 건물이 아니면 얻어낼 수 없는 공간의 질일 것이다.

미케일 세이(Michele Saee)의 퍼블리시스(Publicis)사의 드러그스토어(Drugstore)는 70년대 완성된 유리 파사드의 건물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현대의 도시와 호흡할 수 있는 건물로 재탄생시킨 사례이다. 이 건물은 이름이 드러그스토어로 되어있지만 각종 잡화점과 레스토랑, 극장이 복합된 상업시설이다. 기존 건물은 1970년에 오스망의 건물이 소실된 후 1972년 재건된 것으로, 콘크리트의 본체에 알루미늄 프레임과 반사유리로 된 커튼월로 외부 마감이 이루어져 있다. 건물의 입지는 이 거리의 모뉴먼트가 되는 건물과 인접한 위치이지만 이 건물은 도시와의 대화를 끊고 철저히 내부 지향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세이는 이와같은 건물에 회사의 창조적 실험정신을 대표하는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배스 스파' 프로젝트

도시와의 호흡을 이끌어내기 위해 입면에 유리 와 프레임으로 된 장식을 가미했다. 70년대의 유리커튼월과 현대적 조형어휘가 동일한 소재로 인해 어우러지는 결과를 낳았고, 건물의 내부도 현대적 조형 감각을 반영한 공간으로 재구성 되었다. 그림소의 배스 스파 프로젝트가 기존 건물과의 대비를 통한 조화를 이끌어냈다면 세이의 작업은 유사함 속에서 차이와 새로움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 흥미로운 프로젝트는 그 기능을 새로운 것으로 변환한 것들에서 발견된다. 리노베이션을 통해 기능을 변경한 것들로는 여학교를 요양 시설로 바꾼 장 누벨의 작업, 19세기 공장을 오디토리움으로 바꾼 렌조 피아노의 작업, 텍스타일 공장을 예술 관련 시설로 바꾼 NOX의 작업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양조장을 오피스로 만든 것, 백화점을 문화복합시설로 바꾼 것, 수도원을 식당으로 바꾼 것 등 기존 시설들을 예상치 못한 것들로 바꾼 예들이 소개되었다. 이와 같은 기능의 변환은 건물의 쇠퇴는 구조물 자체의 노후화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기능의 수요상실에도 큰 원인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로이 부여된 기능들은 현재의 건물 입지에 적절한 기능들의 재 배분이다.

건물이 그 기능성과 연관된 타이포지를 지닌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기능의 변환은 새로운



퍼블리시스(Publicis)사의 드러그스토어(Drugstore)



니콜로 파가니니 음악당

공간적 실험과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렌조 피아노(Renzo Piano)의 니콜로 파가니니 음악당은 에리다니아사의 설탕공장이라는 음악당과는 전혀 거리가 먼 형태와 구조를 지닌 건물의 개조를 통해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음악당은 기존 콘서트홀이 지니는 전형적인 외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으며, 내부의 공간적 시퀀스도 전혀 새로운 수 밖에 없다. 특히 음악당의 거대한 바실리카와 같은 내부 공간은 기존의 음악당에서 볼 수 없는 체험을 안겨준다. 이 음악당은 이와 같은 구조체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음향적 퀄리티와 리노베이션에 의해 실현된 경쾌한 투명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호의 특집은 '오스트리아 이스트'로서 최근의 오스트리아의 건축 경향을 다룬 것이다. 아돌프 로스로 대표



되는 래디컬한 근대 건축의 전통이 살아있는 오스트리아 건축사들의 최근의 활동들을 모아보았다. 한스 홀라인, 코프 힘멜브라우 등 잘 알려진 작가를 비롯하여 1건축사 14명의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최근 국내에서의 관심을 끌고 있지 못했던 오스트리아 건축사들의 래디컬한 작품세계를 맛볼 수 있다.

■특집 : 오스트리아 이스트

특집의 권두 에세이를 작성한 바트 로츠마(Bart Lootsma)는 오스트리아 건축사들은 두 가지 양 극단의 성격 중 하나에 가까운 부류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두 극단의 한가지는 건축의 전통과 연속성을 고수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전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하고자 하는 것 즉 모더니티이다. 어느 나라의 건축사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분류의 틀이 아니냐는 지적이 곧바로 나올 수 있지만 오스트리아의 건축사들처럼 이와 같은 틀이 정말로 잘 맞아 들어가는 곳도 없다는 것이 로츠마의 주장이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바로 오스트리아 건축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 건축을 토지의 정신구조 즉, 각 지방의 사회, 문화적 컨텍스트와 연결시켜 보는 이론가들에게 있어서 빈(Wien)의 건축은 가장 좋은 소재였다. 1980년 칼 E 쇼스키(Carl E. Schorske)는 「세기말 비엔나, 정치와 문화」를, 자닉(Janik)과 토클민(Toulmin)은 「비트겐슈타인의 비엔나」를 저술한다. 이들 저작에 힘입어 시간

이 멈추어버린 도시인 빈은 문화도시로서 세계지도에 올라서게 되었고, 학자나 문화에 관심을 둔 관광객들이 몰려들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이 일어났다. 한스 홀라인은 이러한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빈의 명건축물들을 자신의 1980년대 작품에 자주 인용했던 그는 하스 하우스(Haas Haus, 1990년)에 그 응축된 결과물을 보여주었다. 빈의 구시가지의 배꼽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작은 쇼핑몰인 이 건물에서 그는 도시 빈의 역사적 연속성에서부터 현대의 테크놀러지와 상업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망라하였다. 비록 이 건물은 빈의 비평가들의 혹평을 받고, 상업적으로도 실패한 것이었지만 이와 같은 포스트모더니즘 경향의 하이라이트였다.

로츠마는 오스트리아의 건축사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많은 유럽의 건축사들이 오스트리아에서 교편을 잡고 싶어 한다고 오스트리아의 건축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분명 한스 홀라인은 세계적 주목을 받았으며, 최근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코프 힘멜브라우는 분명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유럽의 건축사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오스트리아 건축에 대한 평가는 지구의 반대편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이번 특집에서 소개된 작품들만 하더라도 몇몇 건축사의 작품을 제외하곤 유럽의 다른 국가 건축사들과 다른 특징을 찾아보기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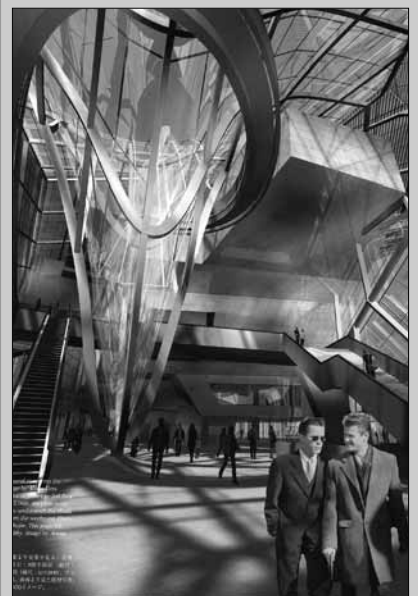
한스 홀라인의 파드츠(Vaduz)의 센터럼 뱅크



BKK-3의 IP.TWO 비즈니스센터

려우며, 개성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그다지 돋보이는 면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래디컬한 면면들이 드러난다. 과감한 형태 표현으로 잘 알려진 코프 힘멜브라우를 논하지 않더라도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은 그들의 소유한 도시의 컨텍스트 안에서 각자 과격하고 대범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아돌프 로스가 약 1세기 전 논쟁과 충격을 안겨준 작업을 지금도 그들은 계속해 가고 있는 것이다.

소개된 작품들은 한스 홀라인의 파드츠(Vaduz)의 센터럼 뱅크, MSP-H 아키텍츠의 마우트하우젠의 비저터 센터, BKK-3의 IP.TWO 비즈니스센터, 코프 힘멜브라우의 BMW Welt - 시간과 지식의 박물관 등이다.



코프 힘멜브라우의 BMW Welt - 시간과 지식의 박물관

신건축

10월호

이번 호에 서는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최초의 쇼와시대 건물인 메이지생명관을 포함한 블록의 정비 프로젝트, 아오키 준의 새로운 루이뷔통 매장 건물, 코지마 카즈히로의 '오타 하우스 뮤지엄' 등이 소개되었으며, 실험적 생태건축물인 '지구의 달걀'도 주목할 만 하다.



이제 루이뷔통 매장 건물, 코지마 카즈히로의 '오타 하우스 뮤지엄' 등이 소개되었으며, 실험적 생태건축물인 '지구의 달걀'도 주목할 만 하다.

메이지야스다생명(明治安田生命)빌딩(마루노우찌 My Plaza) - 미쯔비시지소설계

1997년 쇼와시대의 건축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메이지생명관(1934년 건립)'을 전면보존하는 가운데 약 127m×90m의 도시 블록 전체를 정비하는 프로젝트이다. 역사적 건조물을 활용한 시가지 정비를 진행하기 위해 1999년 도쿄도가 창설한 '중요문화재 특별형 특정지구제도'의 적용에 의해



메이지야스다생명(明治安田生命)빌딩(마루노우찌 My Plaza) - 미쯔비시지소설계

처음으로 1,500%의 용적률(중축분+기준분)으로 준공된 계획이다. 메이지생명관은 앞으로 1년의 기간을 걸쳐 기능갱신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 중요문화재의 동태보존이 실천될 예정이다.

고층의 새로운 건물과 메이지생명관과의 사이 공간은 유리의 천정으로 덮여져 내부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이 파사주(Passage)와 아트리움을 계획함으로써 쇼와 30년(1956년)대 이전에 존재했던 가로로 옥내의 가로공간으로 재현하였으며, 동시에 훼손되어있던 메이지생명관의 동측 입면을 수복(修復)하게 되었다. 파사주와 아트리움으로 인해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메이지 생명관이나 황거(皇居)의 숲을 조망할 수 있게 되어 '마루노우찌' 지구에 이제껏 없었던 도시경관을 창출하게 되었다.

중요문화재를 보존하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지하구축부가 협소했으며, 지상에 공사 야드도 확보되지 못하는 요건이 되었다. 이러한 분제와 메이지생명관과의 디자인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층 사무실의 엘리베이터 출발지점을 3층으로 하여 8개의 내진(耐震) 코어에 의한 대가구(大架構)와 6.4m의 기본 스패를 채용하였다. 내진 코어를 늘어놓은 분산코어와 센터코어를 복합한 평면을 통해 고층부는 4,000㎡의 거대한 플레이트이지만 창에 면한 오피스 스페이스가 연속되어 자연채광과 조망이 우수한 워크플레이스를 실현하였다.

고층부의 외관디자인은 메이지생명관의 외장 석(北木産)에 가까운 이탈리아산 화강석을 메이지생명관의 자이언트 오더와 비슷한 간격으로



루이뷔통 긴자 나미키점 - 아오키 준

현대적인 디테일을 적용해 배열했으며, 한편 저층부는 마루노우치의 31m의 현고(軒高)를 계승해 하나의 블록에서 이루어진 디자인임을 강조하였다.

루이뷔통 긴자 나미키점 - 아오키 준

이제 루이뷔통 스토어의 건축하면 아오키 준, 아오키 준하면 루이뷔통이 떠오를 정도로 루이뷔통 스토어 건축에서 아오키 준의 작업을 빼놓을 수 없게 되었다. 아오키 준이 루이뷔통의 일을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1999년 여름 완성한 '루이뷔통 나고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다. 이후 여러 개의 루이뷔통 매장 건물의 설계를 통해 그는 일본 내 루이뷔통의 대표적 건축가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통해 일본 내 건축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패션 업계와 건축사와의 밀월의 대표적인 예인 것이다.

루이뷔통 매장 건축에는 다른 건축작업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이 있다. 그것은 실내공간의 설계와 외관의 디자인이 설계의 단계에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는 것이다. 루이뷔통을 세계 각국의 매장에서 동일한 인테리어의 컨셉과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매장 디스플레이를 담당하는 건축사가 고용되어 있다. 인테리어는 그의 몫이며, 매장의 설계를 맡은 건축사는 전체적인 구조체와 외관의 디자인을 맡게 되는 것이다.

아오키 준은 이번 작품을 통해 그동안 일련의 루이뷔통과의 작업을 일단락 짓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간 루이뷔통 매장의 설계를 하면서 도달한 결론은 '외장이나 내장을 구조로부터 분리하여 외장을 독립된 디자인 영역으로 하더라도 그것은 건축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는 이 작품과 관련된 에세이의 제목을 「'절대장식'에 대하여,라고 붙이고 있다. 그는 분명 루이뷔통의 '모노그램' 이상의 미려한 문양과 현대적 건축 이슈들을 담아낸 외장 디자인을 완성해 왔다. 또한 그의 루이뷔통 외관은 비록 내부를 손댈 수 없더라도 외부와 내부가 소통하는 적극적인 외부장식이었다.

(번역 / 강상훈)